

인간의 상태로 보는 구약성경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노아 셈 함 야벳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로 원
역사(pre-history)라
불린다.
이 시대는 역사적인
관심보다는 인류의 기원과
죄의 근원을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창조와 타락한 인간
창조시대

1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심판하셨고 또 교만해진 인간들을 바벨탑에서
온 땅으로 흘으셨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다말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4대에 걸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보여준
사람들이다.

믿음과 순종
족장시대

2

창세기

모세 아론
족장시대 이후 이주한
이스라엘은 400년 간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으며,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모세는 부르심을 따라
소명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을 받게 되었다.

부르심과 소명
출애굽과 광야시대

3

출애굽기, 민수기

애굽에서 큰 집단을 이룬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영도 하에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며
배우고, 시험을 당하고, 벌을 받고, 다시
배우다가 마침내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 갈렙 라합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과정으로 각
지파별로는 기업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소유와 율법
정복시대

4

여호수아,
레위기, 신명기

원래 히브리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다. 간헐적으로
사사들이 일어나 그들을 이끌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14명의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마침내 왕정이 시작되어 사울, 다윗,
솔로몬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다. 솔로몬이 죽은 뒤,
히브리 민족은 남쪽 왕국(유다)과 북쪽
왕국(이스라엘)으로 분열되었다.

삼손 드보라 기드온 에훗
온니엘 입다

주변의 민족이 군주들에
의해 통치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신다. 왕이 없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반복된다.
*타락-심판-부르짖음-구원

왕이 없는 백성
사사시대

5

사사기,
룻기

인간의 상태로 보는 구약성경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인 동시에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으며, 왕을
가진 이스라엘은 영토나
국력에 있어서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선지자들(아래 성경목록 참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신다. 정치적인
분열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시기이다.

다니엘 에스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고레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옵 다윗 솔로몬 술람미여인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시작된다.
3차에 걸쳐서 귀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이스라엘은 축복과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

왕을 가진 백성
단일왕국시대

6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경고하시는 하나님
분열왕국시대

7

열왕기하, 역대하
호세아, 아모스,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요엘, 미가, 스바냐,
요나, 나훔, 오바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포로시대

8

다니엘, 에스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포로귀환시대

9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시대

10

옵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원래 히브리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다.
간헐적으로 사사들이 일어나 그들을
이끌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14명의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마침내 왕정이 시작되어 사울,
다윗, 솔로몬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다.
솔로몬이 죽은 뒤, 히브리 민족은 남쪽
왕국(유다)과 북쪽 왕국(이스라엘)으로
분열되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사악한 왕들의 통치를 받은
뒤에 앗수르(아시리아)에 의해 멸망 당하여(B.C
722년)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의 통치를 받은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당하여(B.C 586년)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다. 그런데 바사(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환했고, 바사(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동포를 구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침묵기(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했다.